숲속의 노가쿠 무대(모리부타이)

전통예능전승관은 모리부타이(숲의 무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1996 년 도메 지역의 전통 노(일본 전통 공연 예술)인 도요마 노를 상연하기 위한 극장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전통 도요마 노는 아마추어가 연기합니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건축가인 구마 겐고가 이 복합 시설과 더불어 주변 건물까지 설계하였습니다. 주위의 산림 경관이 이목을 끌 뿐만 아니라, 배우와 관객 사이의 편안한 공간이 강조된 디자인으로 지어졌습니다. 1997 년 일본건축학회에서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전통 공연 예술인 노는 14 세기에 발전하였으며 당시에는 야외에서만 공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노 극장은 대형 건물 안에 지어져 있어 무대의 지붕 및 다른 디자인 요소만이 야외 공연에서 시작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건축가 구마는 그러한 경향을 의도적으로 뒤집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역사가 오래된 숲의 끝에 무대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연환경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무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커다란 수양벚나무의 꽃잎이 배우들 앞을 수놓고, 여름에는 매미 울음소리가 노의 노래와 어우러지며, 가을에는 보름달과 화톳불이 밤의 공연을 비춥니다.

건축가 구마는 노의 전통적인 무대 건축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적인 디자인 요소를 접목하였습니다. 기둥은 아오모리현의 나한백(일본이 원산지인 유일종 침엽수)으로, 지붕은 도요마 지역에서 채굴된 점판암으로 만들었습니다. 무대 아래에 있는 물동이(미즈가메)는 일반적으로 숨겨져 있지만, 이곳에서는 관객들에게 다 보이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물동이는 배우들의 발박자(마루를 밟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공명장치로서 기능함과 더불어 건축 구성면에서 시각적으로 깊은 인상을 줍니다. 노 공연 무대 주위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하얀 모래 대신 깔린 검은 자갈은 숲 바닥의 어두운 지면을 부각되게 합니다.

무대 배경판에는 일본 화가인 센주 히로시의 노송 그림이 있어 소나무 가지가 숲속으로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대 측면에는 젊음과 신선함을 상징하는 대나무가 코발트 블루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유리창과 다다미로 꾸민 무대 앞 관람 홀과 무대 옆에 자리한 야외 테라스석은 시설에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줍니다.

이 홀은 공연이 없을 때는 일반에 공개되어 많은 이들이 건축물을 감상하기 위해 방문하거나 결혼식이나 코스튬플레이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이용합니다.(사전 신청 필요) 1 층에는 노와 관련된 자료와 의상, 가면 등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모리부타이는 지역 연극의 전통인 도요마 노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문 배우들이 연기하는 외부의 노 공연도 상연합니다.